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5년 12월 1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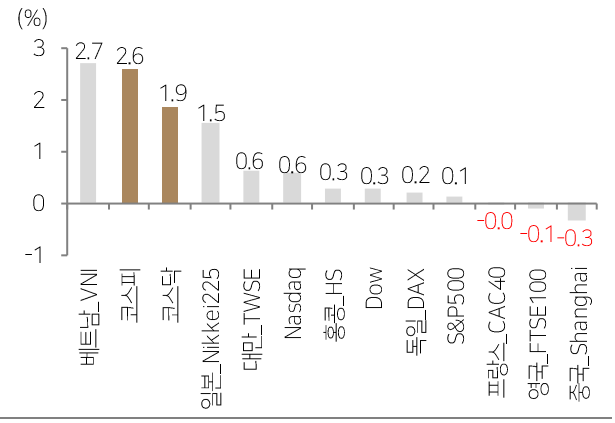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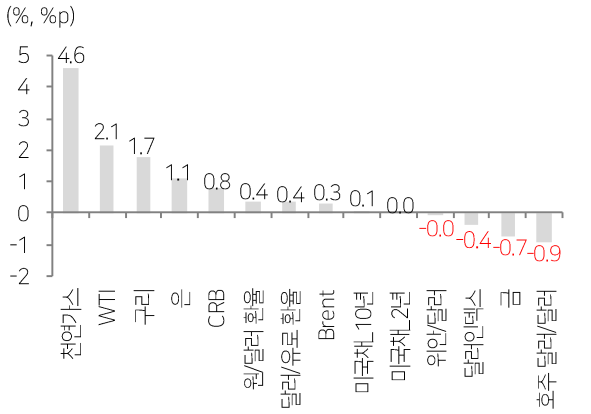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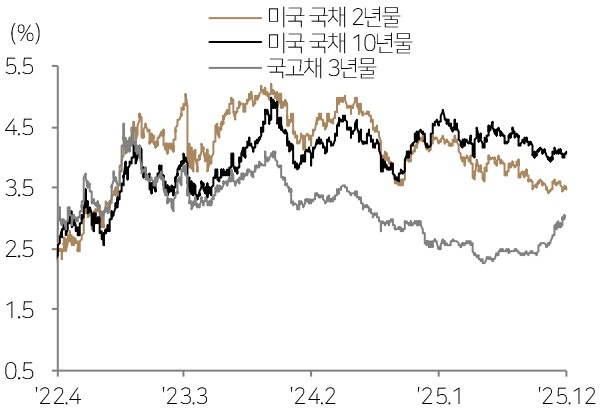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2/4일 대비 11/28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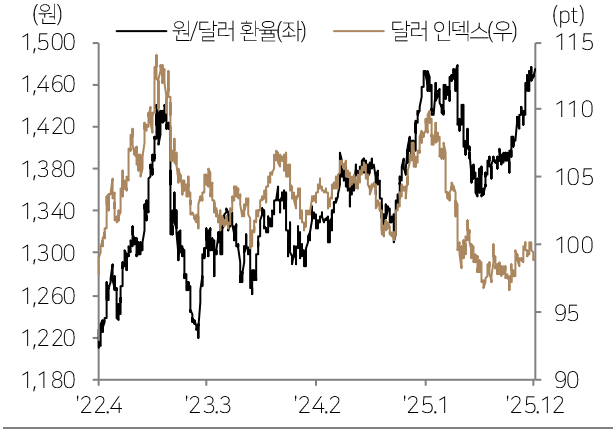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2/4일 대비 11/28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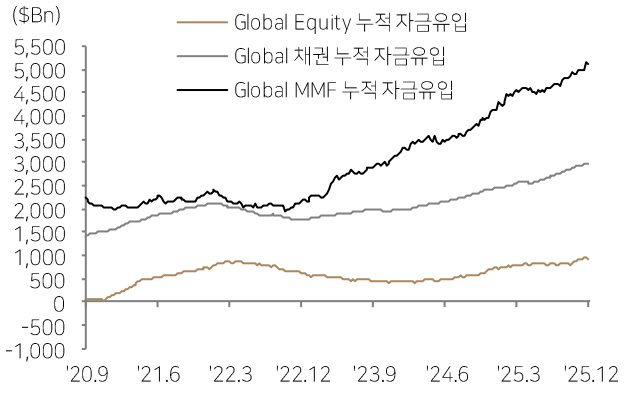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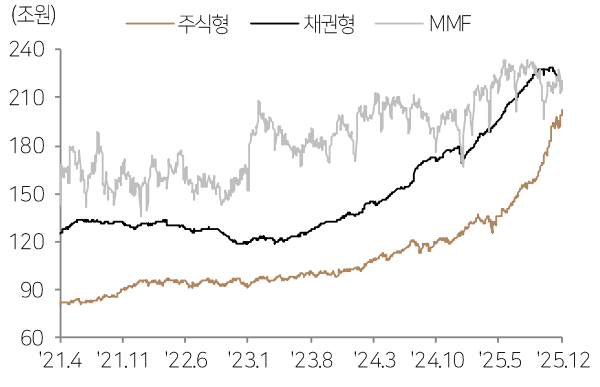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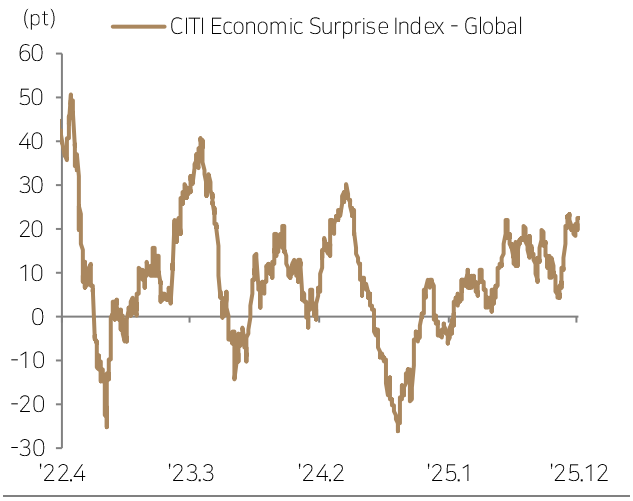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메인 고용지표들의 발표가 FOMC 이후로 미루어진 가운데 그나마 JOLTS 보고서가 FOMC 회의 결과 확인 전 발표될 예정. 여기에서 일자리 수의 감소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셧다운 장기화 이전 발표된 8월 데이터는 사전 전망치나 7월 확정치를 상회하는 일자리 수가 기록되었으나, 실업자 수의 증가로 구인 수가 구직 수를 하회하는 역전 현상이 2개월 연속으로 발생
- 아직 날자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경제공작회의는 12월 상반월 중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향후 1~2주 내 이벤트가 확인될 듯. 중국 실물지표들의 부진과 디플레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정책 기조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회의로 관련 뉴스에 주목할 필요. 주중 확인될 중국 실물 지표들은 여전히 부양책의 필요성을 시사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5-12-08	중국	11월 무역수지	십억달러	104.44	90.07
2025-12-08	중국	11월 수출	%yoy	3.9	-1.1
2025-12-08	중국	11월 수입	%yoy	2.5	1.0
2025-12-08	일본	3분기(최종) 실질 경제성장률 SA	%qoq	-0.5	-0.4
2025-12-09	미국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Index	98.2	98.2
2025-12-10	미국	10월 JOLTS 구인이직 보고서 구인건수	만건	-	-
2025-12-10	중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0	-2.1
2025-12-10	중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7	0.2
2025-12-10	일본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7	2.7
2025-12-10	미국	3분기 고용비용지수	%	0.9	0.9
2025-12-11	미국	11월 연방정부 재정수지	십억달러	-	-284.4
2025-12-12	한국	11월 수출 물가지수	%yoy	-	4.8
2025-12-12	한국	11월 수입 물가지수	%yoy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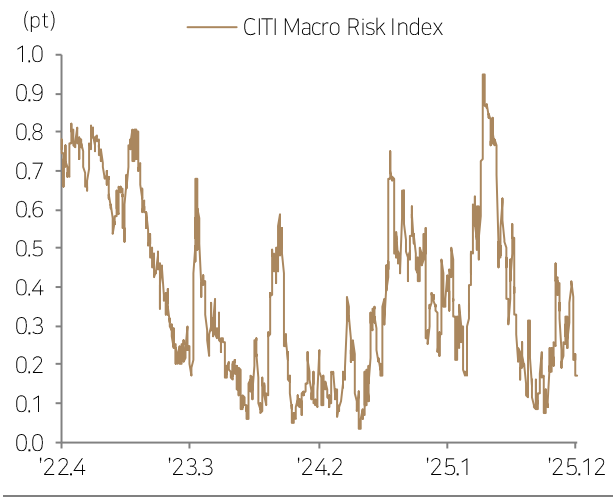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주 중	글로벌	상	주요 IT 기업 실적 관련 **발표**	▪ 9일 오라클, 12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10일은 TSMC의 월매출 발표가 예정. 해당 기업들의 실적은 IT 전방 산업의 수요나 업황 방향성 유추에 활용되는 만큼 주목할 필요 ▪ AI 버블 우려를 촉발한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통해 향후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근거 동향을 확인할 필요. 당사 담당자는 우려 완화를 기대. 브로드컴의 AI 매출 가이던스 등은 상향 조정이 예상되며 ASIC 시장 성장 방향성이 재확인될 수 있는 이벤트. TSMC는 지난 10월 월간 매출이 전년 비 +16.9%로 2024년 2월 이후 1년 반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바 있어 회복 여부 주목
12/11	미국	상	FOMC	▪ 2025년 마지막 FOMC 회의 결과는 11일 새벽(한국시간) 발표 예정. 한때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데이터 불확실성과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60% 까지 상승했던 동결 확률이 PPI 확인 과정 등에서 인하 확률 89%로 전환 ▪ 셧다운 해제 이후에도 BLS 데이터는 확인이 어려우나 기타 데이터들을 참고하면, 4분기에도 고용시장의 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흐름. 만약 12월 동결 결정이 있다해도 인하기조의 종료를 언급할 가능성은 적고, 경제 성장을 반영한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한 언급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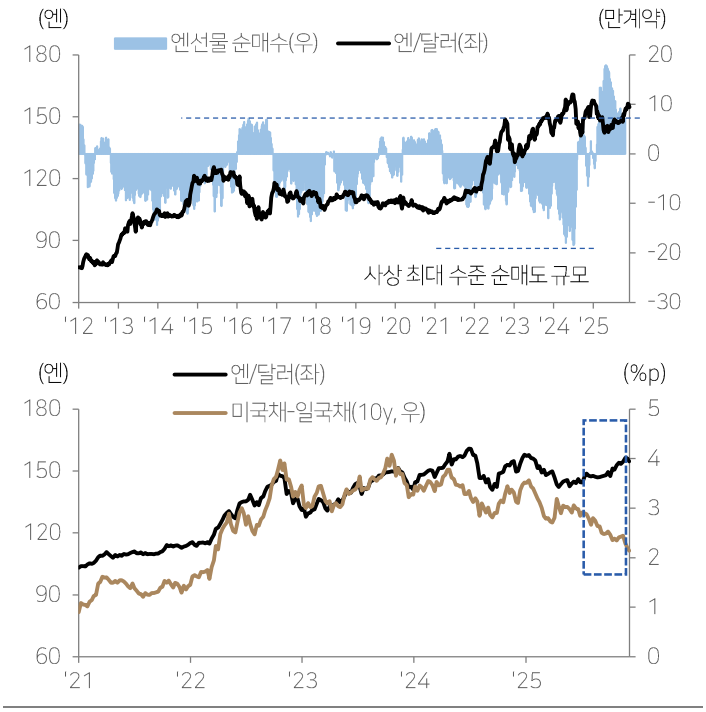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12/1~12/4) 증시 동향	▪ KOSPI(+2.6%), KOSDAQ(+1.9%) 상승. KOSPI는 자동차(+7.5%), 운송(+4.9%), 소매(유통)(+4.8%)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필수소비재(-2.4%), 비철,목재등(-1.9%), 철강(-0.7%) 업종 하락.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과 엔비디아 반등 등 호재에 힘입어 4,000선을 돌파. 반도체와 자동차, 방산 등 주도 업종이 랠리를 견인했으나, 주 후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 제품의 판매 목표 하향 소식에 반도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 매도세가 출회되며 4,000선 부근에서 마감 ▪ DOW(+0.3%), NASDAQ(+0.6%), S&P500(+0.1%) 상승.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기대에도 BOJ 긴축 우려와 비트코인 급락에 하락 출발했으나, ADP 민간 고용 부진에 따른 12월 금리인하 기대감 고조로 반등.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목표 하향이 기술주 투심을 제한하고, 고용 지표 혼조 속 FOMC 경계감이 짙어지며 혼조세로 마감
차주 (12/8~12/12) 증시 전망	▪ KOSPI가 4,000pt선을 회복하고 있으나, 소수 주도주가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기존 상승 국면과는 다소 다른 양상. 여전히 AI 버블논란 등의 영향권에서 반도체의 상승 탄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KOSDAQ 및 기타 업종들의 순환매가 오히려 활발하게 전개. FOMC에서 내년도 점도표가 기존에 비해 크게 낮아지거나, QE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등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근 같이 순환매를 동반한, 완만한 상승이 단기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기존 주도주들의 경우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잔존하는 가운데,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외 업종들의 실적 역시 양호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 같은 전망치 흐름에 더해 연말/연초 효과가 중소형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칙, 정책에 대한 기대까지 감안하면 1개월 내외 한시적으로는 KOSDAQ 및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로봇,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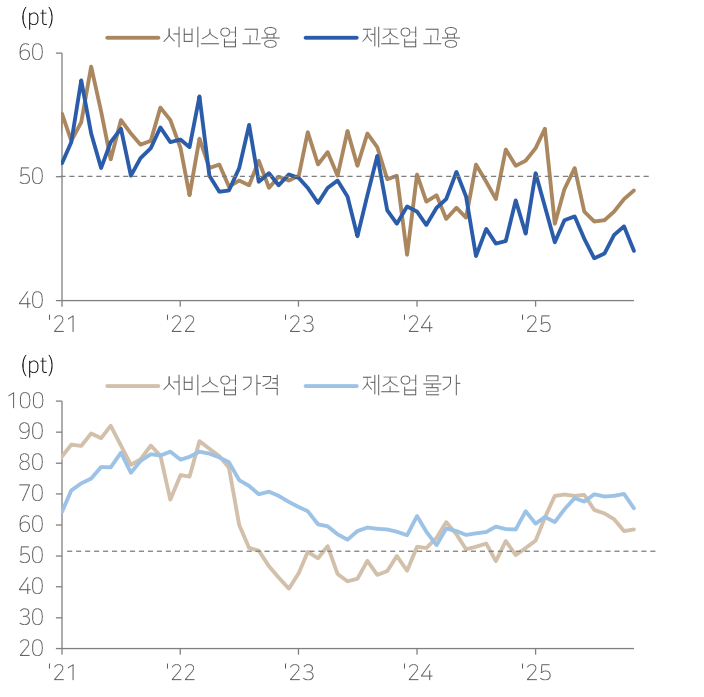
일본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엔캐리 청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최근 우에다 가즈오 BOJ 총리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일본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엔화 강세 우려로 연결. 이는 다시 지난 해 경험했던 엔캐리의 급한 청산과 같은 수급 충격 발생 우려를 유입시키는 상황
- 그러나 지난해 사례는 2023년 이후 일본은행의 실기성 정책과 함께 엔화 약세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엔선물 순매도 포지션이 사상 최대 수준에 달했던 상황. 여기에 예상 못한 시점에 BOJ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어 급격한 포지션 청상이 충격을 유발
- 현 상황은 사뭇 다름.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인지되어 왔고, 엔 선물도 순매수 상태. 고점 대비 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아베노믹스 이후 경험적 상단 수준. 더불어 과거처럼 단순히 금리차만으로 엔/달러 환율이 설명되지 않는 환경도 엔화 약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 즉, 추세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흐름이 형성되기 어려웠던 상황. BOJ 회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으나, 지난해 같은 상황의 재연 가능성은 낮아 보임

ISM 지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지표와 여전히 기준선 이하의 부진을 보이는 고용지표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주 중 ISM 제조업/서비스업지수가 발표. 헤드라인은 제조업이 48.2pt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했고, 서비스업 지수가 52.6pt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를 보임. 서비스업의 경우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11월 소폭 상승하는 경향도 있음
- 실물지표 부재 속에서 헤드라인보다 관심이 가는 것이 고용 및 물가에 대한 전망 부분. 우선 고용 부분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기준선을 하회. 제조업의 경우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4분기 들어 다소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효과도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
- 물가 항목들은 여전히 높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먼저 발표됐던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등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
- 우선 심리지표 측면에서는 고용둔화-물가안정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 유지에 우호적인 모습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